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대낮 52도...사우디 메카 성지순례서 최소 550명 사망**



이슬람 최고 성지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는 정기 성지순례(하지) 기간에 최소 5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AFP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AFP는 복수의 아랍 외교관을 인용해 지난 14일 하지가 시작된 이후 이집트인 최소 323명, 요르단인 최소 60명을 포함해 최소 550명이 숨졌다고 전했다.

이는 메카 인근 알무아셈에 위치한 병원의 영안실 현황을 집계한 결과다. 숨진 순례객들의 사인은 대부분 온열 질환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외교관은 AFP에 이집트인 사망자들은 군중 밀집에 따라 눌러서 죽은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무더위 때문에 숨졌다”고 말했다.

AFP는 자체 집계에 따르면 각국에서 보고된 하지 기간 사망자는 577명이라고 전했다. 하지는 무슬림이 반드시 행해야 할 5대 의무 중 하나로 가장 성스러운 종교의식으로, 매년 이슬람력 12월 7-12일 치러진다. 올해 하지는 여름과 겹친 데다 기후 변화에 따른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더해지면서 폭염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달 발표된 사우디의 한 연구는 성지순례 지역의 온도가 10년마다 섭씨 0.4도씩 상승하고 있다며 기후 변화의 영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우디 국립기상센터에 따르면 17일 메카 대사원 마스지드 알하람의 기온은 섭씨 51.8도를 기록했다.

실제 메카 현지에서는 폭염을 피하기 위해 순례객들이 물을 머리에 들이붓거나 자원봉사자들이 시원한 음료와 초콜릿을 나눠주는 장면이 목격됐다고 AFP는 전했다. 일부 순례객들은 길가에서 움직임이 없는 사람을 목격했고, 때론 어쩔 줄 몰라 하는 구급대원들의 모습도 봤다고 전했다.

사우디 당국은 온열질환을 앓는 순례객 2천 명 이상을 치료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16일 이후 그 집계치를 업데이트하지 않았으며, 사망자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AFP는 전했다. 올해 하지는 19일까지 최대 열새간 이어진다. 사우디 당국은 지금까지 약 180만 명의 순례자가 성지를 찾았고, 그중 160만 명이 해외 입국자라고 밝혔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은 일생에 한 번은 메카 순례를 의무로 여기고 있다. 무슬림들에게 메카로 순례를 다녀오는 것은 일생의 자랑이 되고, 가족에서 한 사람이 순례를 다녀오는 것도 가문의 영광으로 여긴다. 이 기간에 전 세계 수많은 무슬림이 죄 사함과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메카를 찾고 있다(출처: 연합뉴스, 복음기도신문 종합).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요한복음 7:37-38)

하나님, 극단적인 폭염 속 생명의 위협에도 죄 사함과 신의 은총을 얻기 위해 메카로 몰려드는 무슬림들에게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종교적 의무로 순례길에 오른 무슬림들이 자신의 열심과 최선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영혼의 만족 되신 참된 구원자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 신자들을 위해 간구하는 교회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목마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계시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1]

▲ 미얀마 군정, 병력 부족에 여성도 강제 징집 나서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미얀마 군사정권이 남성에 이어 여성도 강제 징집에 나섰다고 국내 언론들이 16일 미얀마나우 등을 인용해 전했다. 군정은 최근 에야와디, 바고 등 일부 지역에서 여성 강제징집을 시작했다. 군정은 에야와디주 파테인에 있는 군사학교에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한 막사를 건설 중이며, 일부 여성들은 이미 징집되어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있다. 군정은 지난 2월 18-35세 남성과 18-27세 여성을 대상으로 2년간 군 복무를 의무화한 병역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3월 말부터 강제 징집을 시작했다. 초기에는 남성들만 징집했으나 병력 부족에 급기야 여성도 징집하고 있다. 강제 징집 이후 많은 젊은이가 해외에 취업하거나 태국 등으로 국경을 넘어 도망쳤다. 탈출이 이어지자, 군정은 해외 취업 허가 절차를 중단하기도 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창세기 49:5-6)

하나님, 반군 공세로 수세에 몰린 미얀마 군부의 강제 징집이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18세 청소년에게까지 미치고 있음을 주께 고하며 이들을 보호해 주시고 전쟁을 멈춰 주옵소서. 여성 신병 교육을 위해 막사를 건설하고 군사훈련을 강행하며 칼을 폭력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군부를 꾸짖어 주시고 혈기와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는 일을 부추기는 사탄을 멸하여 주소서. 피와 눈물로 얼룩진 미얀마의 피난처 되신 주께서 영혼들의 힘이 되어주시고 성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고 주께 올라가 속히 이 땅에 평화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 한국, 교계·시민단체, 편향된 성인식·이념 지닌 대법관 후보 강력 반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 13일 대법관 후임 후보자 55명 중 9명을 선정해 대법관으로 추천한 가운데 이들 중 편향된 성인식·이념을 지닌 자들이 후보자로 선정돼 기독교계와 시민단체들이 강력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17일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진평연,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젠더 이데올로기를 지지하고 편향된 이념을 지닌 이숙연, 오영준, 박순영 후보자를 대법관 후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숙연 특허법원 고등법원 판사는 대법원 젠더법연구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으로 엘지비티(LGBT) 권리 옹호 활동을 해왔고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문재인 정부 때 주요 요직을 차지해 논란이 됐던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며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는 노동법 전문가로 대법관 후보에서 대통령실에 의해 공개적으로 거부된 바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그런즉 군왕들이 너희는 자해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이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시편 2:10-11)

하나님, 나라와 국민을 위한 법률을 다루며 수행하는 대법관 추천에 편향된 성 가치관과 이념을 가진 후보자가 올라와 있음을 통탄하며 대한민국의 위기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이 일에 나팔을 불며 맞서는 단체들과 교회의 간구에 응답하사 사회적 규범과 원칙이 불의에 물들지 않도록 대법관 진출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왕과 재판관들이 주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의 교회가 그날이 가까이 왔음을 깨달아 더욱 복음 전함에 전부를 걸게 하시고 이를 통해 눈 어두운 백성들의 눈을 밝히사 주를 따르며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주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
중국교회 새 찬송가, 국가와 공산당 찬양 내용 담겨



한국순교자의소리(한국 VOM)는 최근 중국 랴오닝성에서 발간된 새로운 찬송가를 통해 중국교회 음악의 미래를 엿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VOM 현숙 폴리 대표는 “이 찬송가에 ‘조국에 축복이 있기를’, ‘민족의 기쁨’, ‘기독교의 중국화 촉진’, ‘아름다운 네 갈래 전락’ 같은 제목의 노래와 시 50곡이 수록돼 있다”며 “마지막 노래는 중국의 국기와 헌법, 공산주의와 중국 전통문화를 찬양한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기독교를 ‘중국화’ 하려는 공산당의 지속적인 노력이 이 새 찬송가에 반영돼 있다. 전통적인 기독교 찬송가는 성경 말씀과 신학을 담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지만, 이 모음집에 수록된 찬송가와 시는 정치적인 표어들을 포함해 공산당과 중국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고 했다.

그녀는 “이 찬송가에 수록된 노래 일부에 기독교 신앙에 기초한 노랫말이 여전히 담겨 있으나, 그러한 노랫말도 공산당이 교회에 홍보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사회주의 핵심 가치 및 중국의 전통 가치와 혼합돼 있다. 이런 노래들은 단결과 진보, 평화와 관용 개념을 강조한다”고 했다.

이 찬송가는 랴오닝성의 공식적인 기독교협의회 의장이자 랴오닝성 잉커우시 삼자애국운동위원회 회장인 허우위지에 목사의 작품이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공산당이 전통적인 기독교 찬송가를 점점 더 금지하고 있는 시점에 이 새 찬송가가 출판됐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중국 당국이 정부에 등록된 ‘삼자교회’에 ‘문화 활동 센터’를 설치해,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오페라도 감상하고 서예나 그림이나 사진을 배울 수 있게 했다고 말한다.

공산당은 교회를 폐쇄하기보다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거나 예수님을 교회 활동의 가장자리로 밀어냄으로 공산주의 가치를 증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일을 통해 세계 교회가 중국의 가정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과 동역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중국에서 공산주의가 아닌 그리스도가 여전히 선포되고 찬양받는 곳은 가정교회다. 현재 남아 있는 가정교회 성도들은 아마도 기독교 신앙의 기본이 되는 찬송가와 예배 찬양을 아는 중국의 유일한 세대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많은 가정교회 성도가 중국에서 참된 신앙의 불씨를 꺼트리지 않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 찬양을 부를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예레미야 35:18-19)

하나님, 기독교를 공산화하기 위해 박해를 넘어 찬양의 가사까지 고쳐 성도의 신앙을 무너뜨리거나 문화 활동으로 교회의 가치와 역할을 퇴색시키려는 중국을 꾸짖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아무리 넘어뜨리려 해도 무너지지 않으며 갖은 시도로 신앙의 대를 끊으려 하나 주님의 사랑에서 이들을 결코 끊을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중국교회의 믿음을 도우사 주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 행하게 하시고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약속을 이루사 주 예수의 이름이 더욱 이 땅에 흥왕하게 하옵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2]

▲ 러시아군, 우크라이나 포로 생포 대신 참수 명령

우크라이나 검찰이 18일 러시아군이 자국군을 포로로 생포하는 대신 참수할 것을 명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안드리 코스틴 우크라이나 검찰총장은 엑스(X)에서 이 같은 정보를 입수했다며 사람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가 군용차량 보닛에 올려진 사진을 공개했다. 코스틴 총장은 “도네츠크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참수된 사실이 기록됐다”며 이는 우크라이나인 몰살을 목표로 삼는 러시아 범죄 정책의 참혹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4월에도 우크라이나군을 참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온라인에 유포돼 러시아 검찰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미국 싱크탱크 전쟁연구소(ISW) 등은 러시아 민간 용병 바그너 그룹을 용의자로 지목했다.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살해·성폭행·포로 즉결 처형 등 러시아군의 전쟁범죄를 자체 수사하는 한편 국제사회에 이 사안을 다룰 특별재판소 설립을 요청하고 있다.

주 여호와와 말씀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에스겔 18:30)

하나님, 러시아군이 포로로 잡힌 우크라이나인을 참수하는 등 전쟁이 가져다준 참담한 소식에 애통하며 나아가오니 전쟁에 사로잡히고 피해입은 모든 자들을 보호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상대방에 대해 잔혹한 행위를 멈추지 않는 러시아를 꾸짖어 주시고 이생의 삶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하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받을 그날을 두려워하며 돌이켜 회개하게 하옵소서. 속히 전쟁을 멈춰주시고 죄로 인해 죽을 인생을 아들의 생명으로 바꾸신 십자가의 복음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선포되어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화평케 하소서.

▲ 이란, 규모 4.9 지진 발생...4명 사망·120여 명 부상

이란 북동부 카슈마르 지역에서 18일 규모 4.9의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지는 등 피해가 발생해 4명이 숨지고 120여 명이 다쳤다고 연합뉴스가 19일 AFP, DPA 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이란 국영 언론은 지진이 이날 오후 1시 24분께 발생했다고 전했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지진 발생 깊이는 10km다. 이란은 아라비아 지각판과 유라시아 지각판 등이 맞물리는 곳에 있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으로 작년에는 튀르키예와의 국경 지역에서 규모 5.9의 지진이 발생해 3명이 숨지고 800여 명 이상이 다쳤다. 2003년에는 이란 남동부 밤시에서 규모 6.6의 지진으로 3만 1,000명 이상이 숨졌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게 알리소서(시편 67:1-2)

하나님, 지질학적 특성상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진으로 늘 불안한 마음을 안고 살아야 하는 이곳에 주께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이슬람 국가로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정치적 압제로 인해 자유를 소망하는 이란에 그의 얼굴빛을 비추시고 주의 도를 땅 위에 선포하사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복을 베푸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로 존재를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신부 된 교회 삼으사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 알리는 소망의 나팔수로 이들을 사용하옵소서.

“세상에 속한자가 위협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라크 법원, 기독교인 어머니와 자녀에 이슬람 개종 명령



이라크 법원이 기독교인 어머니와 세 자녀가 이슬람으로 개종하도록 판결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판결은 부모 중 한 명이 개종할 경우 자녀가 반드시 이슬람교를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이라크의 개인 신분법 해석에 근거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전했다.

이에 따르면, 쿠르디스탄 지역 두호크(Duhok)에 거주하는 엘빈 조셉(Elvin Joseph)은 그녀의 어머니가 이혼 후 무슬림 남성과 재혼해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는 사실이 폭로되

면서 곤경에 빠졌다.

조셉은 루도 미디어 네트워크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기독교인”이라며 “저는 기독교인 남자와 결혼했다. 나에게는 세 명의 기독교인 자녀가 있다. 나는 내 언어로 교육받았다. 나의 모든 공식 문서는 기독교다. 우리 결혼은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1959년 제정된 법은 무슬림과의 가족 관계 때문에 그녀와 그녀의 자녀들의 개종을 요구한다고 미국에 본부를 둔 박해감시단체인 국제기독교연대(ICC)가 밝혔다.

이 법의 의미는 단순한 종교적 정체성을 넘어 샤리아법 조항에 따른 결혼, 상속 및 양육권에 영향을 미친다. 그 결과, 조셉은 그리스도인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유지하는 데 법적 어려움을 겪게 된다. 조셉의 남편인 세미 패트로스는 국가 신분증 사무소에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는 “사무소에서 장모님이 이슬람교로 개종했으니 아내도 이슬람교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내 아이들에게도 적용된다. 그들의 종교는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이 사건과 비슷한 곤경에 처한 기독교인 가정을 변호했던 아크람 미하일은 “(이 법은) 누군가를 무력으로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도록 강요한다. 이슬람 전문가가 아니지만 이슬람에서는 다른 사람에게 종교를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최근 쿠르드 지역 네르치반 바르자니(Nechirvan Barzani)를 비롯한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가톨릭 대학 회의에서는 개인 신분법의 파급 효과에 초점을 맞췄다. 이번 회의에는 중동 전역의 기독교 공동체에서 상당한 참여가 이루어졌다. 이 회의는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개인 신분법에 대한 개혁 제안 초안을 작성하도록 촉구하는 권고로 마무리된 것으로 알려졌다(출처: 기독교일보 종합).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 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시편 10:17-18)

하나님, 부모 중 한 명이 이슬람으로 개종할 경우 자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슬람으로 개종해야 하는 악법으로 인해 곤경에 처한 조셉 가정과 기독교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개인 신분법이라는 불의한 법을 명분으로 주의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나라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자를 준비시켜 주셔서 압제당하는 자를 위한 공의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거대한 이슬람의 압제 가운데 있는 교회를 진리의 터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고난과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구원이 임하게 하소서.

한주간 긴급기도 [소그룹3]

▲ 인도, 올여름 폭염으로 110여 명 사망

인도에서 올해 여름 들어 북부 등을 중심으로 이례적인 수준의 폭염이 강타하면서 열사병 증세로 입원한 환자와 사망한 이의 수가 각각 4만여 명, 11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20일 현지 매체와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전했다. 19일 인도 연방정부 보건부는 지난 3월 1일부터 지난 18일까지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인도 여름은 대체로 3-4월께부터 시작되며 6월부터는 우기로 접어든다. 하지만 올해 폭염은 북부와 동부에서 평년보다 더 길고 강하게 지속되고 있다. 특히 북부에 있는 수도 뉴델리에서는 지난 18일 밤 기온이 35.2도를 나타내 최소 55년 만에 가장 높았다고 힌두스탄타임스는 전했다. 인도기상청은 1969년 이후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일 밤 기온은 평년 기온보다 8도 높았고 1972년 5월 23일 기록한 직전 최고치(34.9도)를 추월했다고 밝혔다.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이까,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이사야 51:10,15)

하나님, 이례적인 수준의 폭염이 강타하여 온몸으로 더위를 견디며 수많은 열사병 환자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이 땅을 만군의 하나님께 의탁 드립니다. 넓고 깊은 바다의 물을 말리시며 그 깊은 곳에 길을 내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오니 인도를 불쌍히 여기사 이들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헛된 우상을 파하시라 주를 보는 은혜를 베푸소서. 기독교인을 향한 박해가 여전한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교회로 인해 복음의 소망이 꽃피게 하시고 인내로 열매를 맺어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땅 되게 하옵소서.

▲ 국제이주기구, 갠단 폭력 사태로 아이티 실향민 급증

갠단의 폭력 사태로 심각한 사회 불안을 겪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최근 3개월간 국내 실향민이 급증했다고 연합뉴스가 20일 국제이주기구(IOM)를 인용해 전했다. IOM에 따르면 지난 3월 이후 최근까지 아이티 전역에서 약 58만 명의 국내실향민이 발생, 직전 3개월보다 60% 증가했다. 국내실향민은 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통상적 거주지나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나 국경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을 뜻한다. 국제이주기구는 갠단이 지역의 80%가량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 수도 포르토프랭스뿐 아니라 아이티 전역에서 무장 폭력 사태가 빈발하면서 실향민이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아이티 남부 지역에서도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국내실향민 수가 15만 명 넘게 늘어나 27만 명에 이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이사야 9:2,4)

하나님, 갠단이 아이티를 점령한 후로 무장 폭력 사태가 빈발하여 불안한 치안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급증하는 실향민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여 사망의 그늘진 땅으로 만들고 있는 갠단들을 꾸짖어 주시고 이곳에 큰 빛 되신 그리스도를 계시하여 주셔서 압제자의 채찍과 막대기를 꺾어 주십시오. 고통받는 영혼들과 끝까지 함께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성도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정의가 회복되어 진리가 살아 숨 쉬는 나라 되게 하소서.